

時論

技術의 時代와 21世紀 農業*

許信行**

- I. 21世紀 技術時代의 開幕
- II. 主要變化의 물결
- III. 韓國農業의 主要變化와 21世紀 展開
- IV. 맷는 말

I. 21世紀 技術時代의 開幕

인류의 頭腦發展은 21세기를 향하여 地球村을 資源의 시대에서 技術의 時代로 바꿔 놓고 있다. 주로 技術의 革新에 따른 交通과 通信의 발달로 인하여 지금 거대한 地球村은 하나로 통합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1日生活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10년이나 2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과거 10년은 걸려야 江山이 바뀐다고 믿었던 생활환경 변화의 리듬이 요즈음에는 1~2년으로 단축되었고, 다가오는 기술의 시대에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太初의 역사 이래 수만년, 수천년, 수백년, 수

십년을 두고 변하던 경제사회의 물결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빠른 頻度와 週期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변동의 幅도 커지게 될 것이다.

경제사회 변화의 물결이 컴퓨터 계기 움직이듯이 더욱 빨라지면서 변동의 진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면 농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현상도 그에 상응한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각 분야의 이런 변화들이 상호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원인과 결과들이 자전거 체인처럼 맞물려 끝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확실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소화시키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덮쳐서 방향감각마저 상실해 버릴 우려를 안고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이 서울에 왔을 때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알아낸 지식 내지 진리는 우주 안에 담긴 진리의 1%도 안된다고 단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의 영역이 이 1%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기술혁

*이 글은 농림산부 12월 월례조회 특강초록임.

**副院長

신의 가능성과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極超音速 여객기가 2~3년 안에 출현되면 세계 어느곳이건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어날 때 과연 地球 자체가 온전하게 보존될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처럼 무서운 技術時代가 개막될 때 우선 농업을 둘러싼 경제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농업자체는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지, 상상의 영역을 다소나마 확대시켜 보고자 한다.

II. 主要變化의 물결

1. 地球村의 統合과 開放化的 물결

기술의 開發이 가속되면 될수록 180여개國에 50억 인구가 살고 있는 地球는 조그마한 하나의 村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1시간 안에 세계 어디고 갈 수 있는 1日生活圈으로 地球村의 개념이 좁아질 때 사람들은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게 될 것이다. 이런 정후와 조짐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東西獨을 갈라 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두터운 성벽을 쌓아 올렸던 소련과 東歐諸國이 개혁과 개방을 앞세워 철의 장막을 거두고 있다. 자유세계 안에서도 美國과 캐나다가 89년 1월 1일 이후 自由貿易地域(FTA)을 결성하였고, EC諸國은 오는 92년에 하나의 유럽으로서 大統合을 시도한다.

아세안의 6個國(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브루나이)이 地域의 자유스러운 통합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東의 걸프協力委員會(81. 5월에 결성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토우국연합, 바레인, 카타르, 오만의 6個國연합), 아랍마그리브聯盟(89. 2월에 결성한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모르타니아의 5個國 연합) 등도 크게 보면 블록화 현상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모두가 開放化의 조짐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개방화의 움직임은 南美에서도 일어나고,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도 활발하게 태동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해서 이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開放化의 물결은 필연적으로 交易의 自由化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地球村의 1日生活圈化는 각국의 國民經濟가 世界經濟로 통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지금 선진제국, 특히 斜陽길에 접어든 선진국들의 保護貿易趨勢도 어느땐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부 先進諸國의 보호주의 경향은 開途國을 포함한 다른 모든 交易國들의 開放을 유도해내게 될 것이다. 과거 後進國 내지 開途國들이 국내산업을 철벽처럼 보호하고 있을 때 선진국들은 交易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貿易의 열매를 거두어 들인바 있는데, 오늘날 新興工業國(NICs)들을 중심으로 한 開途國의 적극적인 경제개발과 무역 공세가 치열해지자 선진제국이 市場의 門을 적절히 조절 내지 안으로 닫으려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봐진다. 그렇다고 하여 선진국들이 交易의 門을 완전하게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開放의 균형유지를 위한 노력이요, 2步전진을 위한 1步후퇴의 몸부림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기에 우리는 開放化를 우리 나라 국내시장만의 개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交易國들의 市場도 모두 다함께 개방되는 것으로 폭넓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 우리 나라만 개방하게 되겠는가. 선진제국의 市場은 우리 나라의 市場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활짝 열려 있지 않는가. 개방화에 대한 꾀해의식을 버리고 모든 交易國들이 개방할 때, 무엇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다. 수입되는 농산물이 있으면 수출하는 농산물이 있을 것이며, 수입되는 금액보다

수출하는 금액이 더 많으면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는 수입되는 농산물을 줄이고 수출하는 농산물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요,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21세기를 향한 農政의 課題라고 본다.

2. 世界農業의 轉換과 農產物交易의 擴大

技術의 革新과 각국의 농업기반에 대한 투자확대는 세계농업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고 말았다. 우리는 「食糧」하면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런 固定觀念도 이제는 낡은 思考에 지나지 않는다. 식량이 남아도는 시대로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식량의 需給事情은 만성적으로 부족된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世界 第2次 大戰 이후 食糧安保를 중시여진 각국의 増產努力으로 1980년대 중반에 過剩生產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였다. 85년을 전후하여 세계의 穀倉地域이라고 부를 수 있는 美國이 과잉생산에 따른 위기를 맞이하고 많은 농가들이 파산하기에 이른 적이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주요 食糧輸出國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EC諸國은 물론 식량을 수입하는 日本이나 臺灣 심지어 韓國에 이르기까지 과잉생산의 위험을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그 유명한 소값파동이 이 때 일어났던 사실을 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농업의 과잉생산에 의한 위기가 技術開發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선뜻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찍이 미국의 몇몇 학자들은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산농민들은 현재의 농산물 수확량보다 35% 정도 덜 거두어 들 이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만일 품종개량이라든가 경영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영역의 효과를 종합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농산물의 증산이

얼마나 될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벼 신품종개발에 의한 綠色革命 뿐만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 등의 품종개량에 의한 증산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해 보면 기술은 과잉생산을 유발시키고도 남는다.

그리하여 1980년대 초부터 부딪친 EC諸國의 過剩生產과 農業保護政策의 한계,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美國農業의 危機 그리고 주요 수입국들의 農業保護政策 강화로 농업에 대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대로 나가다가는 世界農業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주요국가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食糧輸出國들이 생산을 감축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평한 交易環境의 조성을 통해 식량의 교역(소비확대)을 늘려 나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岐路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前者의 선택, 즉 농업생산의 감축은 世界經濟의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아직 地球上에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다는 현실문제 때문에 後者, 즉 농산물의 交易擴大라는 선택으로선회하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1986년 9월 南美의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있었던 GATT의 閣僚宣言이요, 농산물의 교역확대를 위한 多者間貿易協商精神이다.

1990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오는 2000년까지 GATT회원국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제반 直·間接補助와 농산물의 輸入規制를 완전하게 없애자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순수한 自由市場의 메카니즘에 의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EC諸國과 日本 그리고 韓國 등 많은 나라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農業補助와 농산물의 輸入規制의 완전한 철폐는 어렵겠지

만 농산물의 自由交易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韓國農業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노력이 바로 21세기를 향한 農政의 課題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업보조나 수입규제가 우리 나라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美國이나 EC諸國의 경우 농업에 대한 보조가 농가소득의 30~40%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모든 交易國이 농업보조와 수입규제를 동시에 제거할 때 과연 한국농업은 불리한 것인가? 수입개방은 한국농업의 몰락과 직결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개방화에 대한 피해의식이요, 도전성을 결여한 패배주의이며, 시대감각을 놓친 守舊的 사고방식일 뿐이다. 우리 한국농업에도 희망은 있다.

3. 國際分業의 促進과 世界農業構造의 變化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世界經濟가 하나로 통합되면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의 하나는 國際分業의 촉진이 될 것이다.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설명하던 그런 희미한 국제분업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고 냉혹한 국제분업, 경제적 논리가 엄격하게 지배하는 국제분업의 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賦存資源의 차이에 따라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財貨의 생산원가에 차이가 생기고, 소비자들은 문화적 요인이라든가 국내정책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오직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서 購買行爲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정 財貨의 생산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과 생산자에게로 집중 내지 특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國際分業은 불가피해진다.

國際分業과 貿易體系는 꼭 戰爭놀이와 같은 것이

어서 어느 지역의 누가 가장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의 輸入市場에 누가 가장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國際分業體系가 형성될 것이다. 고로 國際分業體系는 생산원가 뿐만이 아니라 輸送에 따른 諸費用까지도 포함시킨 포괄적인 원가개념에 의해서 재편성될 것이다.

이런 費用的인 視角에서 관찰할 때, 앞으로 世界農業構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농업생산의 형태는 土地粗放的 자연자원의 존형의 농업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이 범주에 속하는데 이들 나라는 土地와 機械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예를 들어 곡물생산에 있어서 매우 유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쇠고기라 할지라도 오스트레일리아가 粗飼料 중심의 低級牛肉을 생산하는데 비해서 美國은 濃厚飼料 중심의 高級牛肉을 생산하게 되고, 교역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美國은 햄버거용 低級牛肉을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연간 34만톤씩을 수입해 들이는 동시에 곡물을 급여한 29만톤의 高級牛肉을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농업생산의 형태는 勞動集約的인 농업이다. 노동의 賦存度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영구적으로 이런 부류

에 속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소련, 중국, 인도, 東歐諸國 등 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하면서도 저렴한 국가들이 労動集約型의 농업생산으로 특화하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양송이, 밤, 호도 등 주요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對日輸出이 타격을 입게 된 것도 그 배후에 중국, 소련, 북한의 저렴한 對日輸出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세계농업구조의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기에 이들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농업생산 동향은 우리나라의 농업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네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는 労動과 資本·技術集約型의 농업인데, 이는 오늘날 한국과 대만 등이 처해 있는 과도기적 형태의 농업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소련이나 중국 등이 이런 형태의 농업으로서 한국과 대만 등을 추격하게 될 것이다.

다섯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는 資本·技術集約型의 高能率 농업이다. 지금의 화란과 덴마크, 일본 등이 이런 형태의 농업국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은 농업국으로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덴마크와 화란은 농업국으로서 크게 융성한 국가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덴마크와 화란은 이웃에 영국과 독일이라는 經濟大國을 가지고 있었지만, 日本은 그런 大國을 가지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르다. 이웃 日本이 세계 제1의 經濟大國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별도로 설명키로 한다.

세계농업은 앞으로 資源의 賦存度와 人力의 배분 그리고 資本과 技術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재편되고, 유리한 분야에서 特化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국농업의 전개방향은 크게 봐서 資本·技術集約型이다. 土地는 가장 희소한 자원 가운데 하나이고, 人的資源은 점차 비싸지고 있는데 반해

서 資本과 技術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4. 日本의 浮上과 東北亞市場의 擴大

技術의 時代는 국가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資源의 시대에는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나라가 富國強兵을 누렸다고 한다면, 기술의 시대에는 資源보다 기술을 많이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국가가 번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資源의 시대를 지배했던 영국과 미국에 이어 技術의 시대에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잇는 東北亞地域國家들이 헤게모니를 잡게 될 것이다.

韓國農業의 장래와 관련지어 우리는 日本의 부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지 일본을 經濟超強國이라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일본의 소나회사가 89년 9월에 미국의 魂이라고 불리우는 할리우드의 컬럼비아 영화사를 34억 달러에 매입해 들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10월 31일에는 일본의 미쓰비시회사가 미국의 心臟이라 할 수 있는 뉴욕의 록펠러센터를 포함한 그룹社(RGI)주식의 51%를 8억 4천 6백만 달러에 인수, 그 경영권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것은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상징적인 것들이고, 실제 일본인들의 경제력은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은 1억 2천 2백만의 인구를 가지고 3조 1,700 억 달러의 국민생산(미국은 5조 2천억 달러)을 올리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5천 달러, 연간 880억 달러의 무역흑자(미국은 1,500억 달러의 적자)를 획득하고 있는 經濟大國이다. 세계 10大은행 가운데 일본은행들이 9개나 랭크될 정도로 이미 일본의 금융계는 外換市場을 뒤흔드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후지 3大重工

業社는 세계의 航空機產業을 석권하려 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은 GNP의 3%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해 34萬件의 特許를 획득, 세계의 40% 개발을 차지할 정도이다.

이런 일본의 경쟁력은 지금 세계의 주요 부동산을 몽땅 사들이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市에 있는 큰 빌딩 25개중 16개와 사무실의 36%를 일본인들이 사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워싱턴, 런던, 파리, 홍콩, 하와이 등 세계의 주요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세계적인 名畫나 古城까지도 닥치는대로 사들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세계의 주요 부동산을 매입해 들이면 21세기에 일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日本의 浮上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고 나쁜 많은 관계가 새로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日本의 경제적인 부상은 수출시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세계를 재패하고 있을 때, 이웃에서 영국시장으로 고급 농산물을 수출하던 덴마크와 화란의 경제가 부흥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日本이 세계 제 1의 經濟大國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바다로 둘러쌓여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수송상의 유리성이다. 고로 우리 나라는 日本의 농산물시장만 개척해도 농업의 성장발전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거대한 中國과 蘇聯의 市場이 서서히 개방되고 있다. 11억의 중국인과 2억 8천만의 소련인들이 경제활동을 적극 활성화하고 고급소비재를 선호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산품의 수출확

대는 물론이고 농업용자재와 농업기술의 수출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다. 동시에 對日本 고급농산물의 수출로 인하여 空洞化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勞動集約의 원료농산물이 中國이나 蘇聯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전변화를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5. 高能率 農業生產과 消費形態의 高級化

技術이 발전하면 농업생산과 식품의 소비형태도 바뀐다. 우선 농업생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까지도 많은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왔었다. 새로운 품종개량과 비료, 농약, 농기계, 기타 농용자재 등 실제 놀라울 정도의 많은 기술진보가 있었다. 앞으로 遺傳工學 등 尖端技術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인간이 원하는 어떤 농산물의 생산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리라는데 의문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다.

농산물의 생김새나 향기 등을 포함한 품질에 있어서 우수한 것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재배 및 사육기술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비용절감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기술의 발전은 농업생산을 工場化로 전환시킬지도 모른다. 화란의 원예산업이 이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토지와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토지자원이 희소한 한국 등의 小農國을 유리한 위치로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더 크게 발전하여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도 있다. 기술의 혁신은 이처럼 세계의 경제현상을 몇번씩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국민들의 식생활형태도 바뀌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직결되고, 이는 다

시 국민소득의 향상과 식생활의 고급화로 연결된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식품소비형태는 「生存」→「認知」→「選擇」→「選好」→「藝術」의 단계로 점차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식생활이 예술의 단계에 이르면 고도의 資本·技術集約的인 농산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소비의 고급화는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식품소비가 고급화되면 소비대상의 농산물은 점차 資本·技術集約的인 고급농산물로 변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요, 한국농업의 앞날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주요 조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기술의 발전은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모두를 변화시키되, 한국과 같이 토지자원은 희소하나 資本과 技術을 부지런히 축적시켜 나가고 있는 나라의 농업을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은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의지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부단한 도전과 노력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다.

III. 韓國農業의 主要變化와 21世紀 展開

1. 韓國農業의 發展段階와 主要變化

發展論의 차원에서 관찰 내지 분석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은 1968년까지 効用追求를 위한 自給自足의 生計農業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후부터 利潤追求를 위한 商業指向의 轉換期에 놓여 있다. 이 轉換期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올바른 개발의 목표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2000년까지는 필요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의 전환기는 1968~2000년까지 전개될 것이며,

그후부터는 명실상부한 利潤追求의 동태적인 商業農의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나라 농업의 발전 단계와 개방화의 외부적인 여건변화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GATT의 국제수지협의회(BOP)에서 한국은 오는 1997년까지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완전하게 개방토록 유예기간을 받아놓고 있는데, 발전단계의 측면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이러한 개방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이다. 그러기에 농업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는 개방의 물결이 10년 정도 빠르게 밀려든 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공업발전은 성숙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농업이나 통신, 서비스 분야 등 낙후산업은 이제 겨우 離陸段階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방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는 우리나라 농업의 보호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戰鬪에 임하는 자세로 出戰의 준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出戰勇士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능력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희생 위에서 勝戰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변화를 점검해보면, 첫째 농업노동력의 급속한 유출에 따른 농업기계화의 불가피성이 대두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농업은 勞動節約의 형태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耕地面積마저 1968년 이후 줄곧 감소되고 있다. 都市化와 工業化的 지속적인 전개로 인하여 매년 평균 1만ha 가까이 줄어듦으로써 한국농업은 또 土地節約의 형태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한편 공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농업용 기계나 자재, 비료, 농약 등이 획기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뿐만 아니라 그 값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토지와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技術農業을 가능

케 만들어 준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축적도 가능해지고 있어서 資本集約的인 농업의 길도 트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농업과 한번 겨뤄 볼 수 있는 분야는 오직 「資本·技術集約型의 輸出農業」이라고 판단된다.

2. 21世紀 農業의 展開方向

지금까지 관찰해 본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21세기의 한국농업은 다음의 몇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資本·技術集約型의 輸出農業이 전개될 것이다. 이 분야는 돼지, 닭, 오리, 링크 등 中小家畜, 고급채소와 과일, 특용작물, 꽃, 고급산채 및 약초 등을 포함한다. 이들 품목을 잘 개발하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분야를 수출농업으로 적극 육성한 적이 없어도 이미 많은 품목이 일본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을 열거해 보면 돼지고기, 닭고기(切斷冷凍), 오리고기, 천연꿀, 송이버섯, 양송이, 야채, 오이절임, 완두콩, 밤, 멜론, 딸기, 곶감, 茶, 건고추, 생강, 양념류, 메밀, 유채씨, 해바라기씨, 겨자씨, 기타 採油用 종자 및 과일, 사료용 작물종자, 채소종자, 紅蓼, 白蓼, 雜蓼, 양배추, 竹, 죽순, 등나무, 완초, 오배자, 떡갈나무잎, 아주까리油, 참기름, 양송이통조림, 冷凍감자, 調製야채, 볶은 땅콩, 감귤통조림, 배통조림 등 다양하다.

21세기 情報社會에서 성행하게 될 多品目 少量生產體系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이들 多品目은 대부분 資本·技術集約的인 것으로서 이미 未來農業의 전개를 예고해 주는 셈이다. 아마도 이 분야는 專農業

중심의 농업으로 特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근대화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규모 委託營農會社 형태의 농업이 전개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에만 치중했던 사회주의의 集團農場이나 協業農의 장점과 개인의 인센티브를 중요시한 資本主義社會의 企業農體系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농업의 형태가 小農構造 아래서는 바로 대규모 委託營農會社라고 믿어진다. 그러기에 이런 형태의 농업은 國際化時代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日本의 富山縣에서는 24년전 2ha의 自耕農을 영위하던 사카다나라는 농부에 의해서 170ha 규모의 賃借農會社가 설립되어 크게 성공하고 있다. 「1人地主에서 1人小作의 時代」로라는 思考의 전환을 기초 삼아 235농가로부터 3년, 6년, 10년 단위로 계약하여 賃借한 170ha를 가지고 벼, 보리, 콩을 재배함으로써 他業種의 수익률보다 더 높힐 수 있었다. 20~30代의 젊은 15명의 출퇴근 직원들에게 8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봉급보다 10~20% 더 높게 임금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여금 내지 각종 보너스, 수당, 보험 및 연금혜택을 주고 入社후 4년이 지나면 株式까지 배당하고 있다. 그리고도 수익이 생겨서 15년전부터 綠色事業과 각종 연관사업을 회사형태로 확대, 번영의 길을 걷고 있다.

전북 군산시 미성동에 사는 이태만씨(40세)도 0.5ha의 영세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15.9ha의 耕地를 賃借, 畦裏作 쌀보리를 재배함으로써 89년에 2천 2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쌀보리 가마당 40kg들이 1등급 1,000가마와 2등급 650가마를 생산하여 3천 4백만원의 조수입을 취득하였다. 부인과 단둘이서 트랙터 1대, 보리탈곡기(맞춤) 1대, 예취

기 1대, 동력분무기 1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이런 수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정된 규모나 마 기계화의 효율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 좋은 실례라고 생각된다.

전북 고창군 공읍면에 사는 김무성씨(34세)는 2ha의 自耕畠과 2ha의 賃借畠 그리고 55ha의 賃借田을 가지고 주로 곁보리와 콩을 재배하였는데도 89년에 8천 5백만원의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다. 50.3ha의 곁보리 생산으로부터 728백만원의 조수입에 19.6백만원의 소득을, 그리고 36ha의 콩(麥後作) 생산으로부터 102.3백만원의 조수입에 65.4백만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小農構造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었다. 경영주를 포함한 5명의 노동력과 트랙터 1대, 경운기 5대, 미스트기 2대, 건조기 1대, 동력분무기 2대, 세렉스 1대, 콩탈곡기 2대 등의 농기계를 가지고 대규모 영농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여겨진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의 小農構造가 모두 이런 형태의 대규모 위탁영농체제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개방화에 따른 國際分業體系 아래서 경쟁력을 확보 하려면 진취적인 농민들 스스로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나서게 될 것이다. 富의 偏重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를 耕地所有의 집중화를 막고 賃貸借에 의한 영농규모의 확대를 피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농업의 한 전개방향이 아닐 수 없다.

셋째, 週末農場에 의한 土俗的 自然食品生產農業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農地를 영세하게 소유한 농민들이나 不在地主들이 토지를 專業農에게 매도 내지 賃貸해주면 규모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간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많은 농민이나 不在地主들이 토지에 대한 높은 기대값과 資產의 안정적 확보수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

지를 쉽게 양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농업생산을 전문적으로 개발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 小農이나 不在地主들은 작은 규모의 農地를 오래 보유하면서 週末農場化하고, 主所得源을 농업밖에서 찾게 될 것이다. 零細小農이 농외취업(예:농공단지)을 하면서 週末農場을 꾸려 나가거나 또 不在地主가 주말이면 자기 농장에 들어가 취미삼아 일하는 그런 형태의 농업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 週末農場群이 나아갈 방향은 매우 土俗의 품목이나 高價值의 자연식품 또는 다른 독특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형태의 농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농업은 수출농업이나 수입대체농업과는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輸入이 어려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國內需要充足型의 傳統農業이 쉽게 사라지 않고 꾼질 기게 존속될 것이다. 부패하기 쉬운 채소라든가 土着果實 그리고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높이 평가된 米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생산농가들이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도 농업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들 농가는 가격 및 소득의 불안정과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他業種의 機會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生計農業의 형태로 계속 존류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21세기 농업의 전개방향을 부단하게 예측하여 돌아오는 국제분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의 근대화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농업의 구조개선은 물론이고 尖端技術의 개발과 人力開發, 근대적인 市場流通의 체계정비, 수출시장의 개척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IV. 맷는 말

技術의 革新에 의해서 모든 經濟社會는 무척이나 빠르게 변한다. 地球村이 하나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交易의 自由가 넘쳐 흐르고,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농산물마저 과잉으로 남아도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업도 예외없이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開放이나 貿易自由化라고 말하면 농산물에 관한 한 「輸入開放」으로 연결, 언제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왔었다. 그러나 開放이나 自由貿易은 우리만의 수입개방이 아니라 交易相對國의 수입개방을 동시에 수반한다. 그러기에 수입의 흐름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누가 얼마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더욱이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도 國際分業이 예상되는데, 우리 나라와 같은 小農國에서도 밖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값진 품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찾아 부지런히 노력하는 일이다.

政策當局이 어떻게 움직이건 현실세계는 언제나 自生力を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政策이 변화의 물결을 거슬러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면 낙후된 농업의 自生力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뚝안의 물이 쌓이게 되면, 그 물은 언제고 넘쳐 흐르게 되어 있다. 물론 정책당국이 변화의 흐름을 잘 잡아 시기

를 놓치지 않고 농업의 발전을 선도해 준다면 개방화시대의 장점과 유리성을 모두 확보, 오히려 농촌 경제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는 97년까지 나머지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해야되는 긴박한 상황 아래서 한치의 시간도 낭비할 겨를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力量을 농업의 對應力 배양에 쏟아 넣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방향감각을 결여한 試行錯誤는 금물이다. 다가올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한국농업을 바로 세울 때가 지금이라고 믿어진다.

參考文獻

- 謝世輝, 「日本이 美國을 추월하고 韓國에 지게 되는 理由」, 한국경제신문사, 1986.
- , 「21세기의 세계 : 한국이 앞장선다」, 동아일보사, 1987.
- 앨빈 토플러, 「제3의 물결」, 학원사, 1981.
- 피터 드러커, 「새로운 現實」, 시사영어사, 1989.
- 許信行, 「한국농업의 성장과 발전방향」, 연구총서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 「韓·美 農產物 交易摩擦에 대한 對應戰略」,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연구센터, 1989.